

# 사람도 주택도 '초고령 전남'

### 전남, 고령인구 비율 23.7%·노령화지수 198.3 등 전국 1위 광주, 인구 감소율 0.8%·1인가구 비율 32.4% 평균 상회 30년 이상 노후주택 광주 17.7%...전남은 35.6% 최고

지난해 전남 고령인구 비율과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3개 지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화지수 상위 15개 시군구에는 고흥(6위)과 신안(7위), 곡성(13위) 등 전남 3곳이 순위에 들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등록세서식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지역 인구는 광주 147만7573명·전남 178만8807명으로, 전체 인구의 각각 2.9%, 3.5%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604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총인구는 5182만9000명으로 전년(5177만9000명)보다 5만명(0.1%) 증가했다.

광주 인구는 전년보다 1만2000명 줄어든 0.8%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경북(-0.9%)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인구 감소율이 가장 컸다.

전남은 전년보다 1000명(0.1%) 증가했다.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과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은 전체 인구의 23.7%인 41만30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였다.

이는 전년(39만9000명)보다 0.8%(1만4000명) 늘어난 수치다.

전남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15.5%)을 훌

쩍 뛰어넘었고, 최하위 세종시(9.5%)의 2.5배 수준이었다. 광주 고령인구 비율은 14.3%(20만7000명)로, 전국에서 12번째로 높았다. 광주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1만1000명(0.9%) 늘었다.

전남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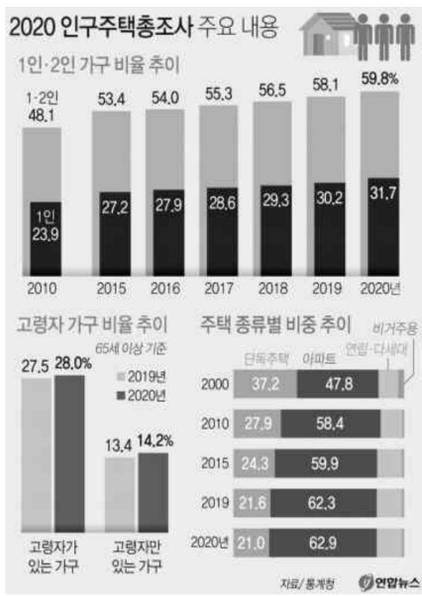
노년부양비를 시도별로 보면 전남(36.8)에 이어 경북(32.4)이 뒤를 이었고, 세종(13.4), 울산(17.1) 순으로 작았다. 노령화지수는 전남(198.3)이 가장 높고, 세종(47.1)이 가장 낮았다.

광주는 인구 감소와 함께 지난해 빈집 4만2000호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4.9%(2000호)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지난해보다 0.4%(-7000호) 감소했다. 전남 빈집은 전년과 같은 12만2000호로 집계됐는데, 30년 이상 된 빈집 비율이 51.4%(6만3000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율은 광주 32.4%·전남 33.7%로, 전년보다 각각 1.3%포인트, 1.6%포인트 증가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비율(31.7%)을 웃돌았다.

광주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1990년 14.7%였지



만 30년 새 2배 넘게 뛰었다. 전남 1인 가구 비율도 19.7%에서 33.7%로, 1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전남은 고령자 1인 가구 비율(13.8%·10만5000가구)이 고령자만 있는 가구 비율(22.9%·17만4000가구)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의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은 전남이 35.6%(28만5000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20년 이상 주택 비중(62.9%·50만4000호)도 전국 최고였다. 광주 30년 이상 된 주택 비중은 17.7%(9만5000호)로, 전국 평균(19.4%)은 밑돌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어촌공사 '농어촌 지하수 빅데이터' 구축

### 농촌 지하수 고갈 사전 방지

한국농어촌공사는 빅데이터 기반 '농어촌지하수 이용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측된 자료는 농어촌지하수관측망시스템(groundwater.or.kr)에서 평년 수위와 현재 수위를 비교해 수위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114개 시·군·구 582개소에 대해 실시간 지하수위, 수질, 수온을 관측하는 농촌지하수관측망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하수위 예·경보는 표준지하수위지수에 따라 정상-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뉘며 관측지점에 설치된 관측망을 통해 1시간 주기로 관측된다.

도서·해안 지역 농어촌 지하수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53개 시·군·구 224개소에서 농작물 연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수 해수침투를 관측하고 있다.

공사 측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지하수위의 변화와 가뭄 발생 시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미래 지하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재해예방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비상 용수로 사용할 수량을 제시하거나 농촌 지하수 고갈을 사전 방지하는 데 쓰인다.

공사는 예·경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관측지점을 1444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모바일로 서비스를 확대해 접근성도 높인다.

김인식 사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통계에 따른 지하수 활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후위기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예방과 스마트농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디지털 치료제 제도 필요"

###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간담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9일 남구 송하동 광주CGI센터에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디지털 치료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 치료제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주목 받는 개념으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신질환 관련 디지털 치료제의 규제 완화 또는 국가 의료보험 적용을 시작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디지털 치료제 관련 제도가 필요하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연·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커피 찌꺼기 모아 친환경 비료 만든다

### 나주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 사업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12개 공공기관과 지역 커피전문점 14곳이 커피 찌꺼기를 함께 모아 친환경 비료로 만들기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8일 나주 에너지클러스터에서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전략의제로 선정돼 추진된다. 혁신도시 기관 사내 카페와 탕비실 등에서 나오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모아 친환경 비료를 만들자는 것이다.

참여 기관은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KPS,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2곳이다.

나주지역 커피전문점 14곳도 커피 찌꺼기 모으기에 동참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들 참가기관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커피 찌꺼기 10t 가량을 모아 친환경 비료 5000포대도 만든다.

지역자활센터도 이 사업에 참여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공헌에도 힘을 보탠다.

환경진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위원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제안하고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공유,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합원 어르신 감사합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왼쪽)는 29일 농협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99세 오동남 조합원(삼도농협·가운데)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예비 법조인, ICT 모의분쟁조정대회 참가하세요

### KISA, 8월6일까지 참가자 모집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1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참가자를 8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경연대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등 모두 4개 분야로 진행

된다. 참가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자유주제로 분쟁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1차 예선(서면)과 2차 본선(현장경연)을 치르게 된다. 최종 우수생 성적은 거둔 6개 팀에게는 총 135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이 주어진다.

ICT 분쟁조정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5인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usr.ecm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모던건설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 목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목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목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목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승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도희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백택진(560820-XXXXXX)  
· 최후주소: 전남 곡성군 곡곡면 고지길 456  
· 피상속인 방 백택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6월 16일로 신청하여 2021년 7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유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 및 유증사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7월 30일  
· 상속인: 1. 박준일(801211-XXXXXX)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111, 107동 3003호 (옥계동, 구미읍계 우미린)  
2. 박정명(830405-XXXXXX)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49 304동 302호(나곡리, 울진원자력본부직원사택)

· 신고기간: 2021. 7. 30. ~ 2021. 10. 8.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1. 박준일의 주소

### 자본 감소 공고

당 회사는 2021년 07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금 2,035,000,000원을 금 1,735,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203,500주에 대하여 30,000주의 비율로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203,500주를 173,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 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1년 07월 30일  
주식회사 남양종합건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영무정로 46 대표이사 최순범

### 산행안내

8월22일(일)  
▲광주K시산악회 8월22일(일) 경북 충북, 괴산, 문경&백두대간 대야산 정상 비로봉 선유동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 음카페 광주K시산악회 ☎ 010 7794 6920

## 光州日報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북광주 525-3761
- 양 산 571-7658
- 용 봉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부 225-6001
- 충 장 222-8171

**남 구**

- 북 부 673-6836
- 남 신 673-6836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화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침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 동 명 222-9054
- 중 양 222-9054

- 백 운 651-1833
- 송 하 675-6605

- 상 무 372-2352
- 운 천 376-7153
- 풍 암 603-0311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

광고문의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예향구독 220-0550